

메일보내기 | 오류신고 | 프린트 | [+](#) [-](#) [가](#)

"한인 뷰티서플라이 가면 불쾌감"

달라스 지역 신문 흑인 소유 가게 소개하며 언급

2009년 06월 27일 (토) 05:48:19

김용진 jo2001jo@naver.com

흑인 소유 뷰티서플라이 이용으로 흑인들의 돈을 흑인에게 되돌리자는 것과 한인 뷰티서플라이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을 지적한 기사가 보도되어 한인 뷰티서플라이에 경각심이 되고 있다. 텍사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발간되는 North Dallas Gazette지는 6월 19일자로 달라스 지역의 Plano에 있는 흑인 소유 뷰티서플라이 '3 Sister's Beauty Supply'라는 스토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이 가게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Asian(한국인을 뜻하는 듯)들이 운영하는 다른 뷰티서플라이를 들린 소감을 밝혔다. 기자는 이 가게가 손님들에게 무례하고 불친절하다는 것과 심지어 손님들의 동태를 추적하는 플라스마 모니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뒤쫓으며 감시하는 등 불쾌감을 주었다고 먼저 밝혔다. 또한 이 가게가 헤어 제품을 구입할 때도 대부분 Asian인 도매업체로부터 거부를 당하였고 기존의 가게가 너무 가까워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변명을 들었다고 기사는 밝혔다.

이 기사는 이 가게의 오너의 말을 빌어 흑인 소유 뷰티서플라이가 한국인 도매업체로부터 모든 물건을 구입하려는 것은 실수라고 말한다. 한국 뷰티서플라이에는 없는 흑인 브랜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가게의 소유주는 앞으로 흑인 뷰티서플라이들끼리 연대하여 판매 기법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2006년도에 결성된 BOBSA(Black Owned Beauty Supply Association)의 슬로건인 흑인들이 빼앗긴 돈을 흑인 뷰티서플라이로 되찾자는 것의 연장선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시카고, 애틀란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들의 흑인 가게 이용 운동과도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달라스 뷰티서플라이 협회 손현호 회장은 이에 대하여 "이 기사에 대하여 지나친 과민반응은 필요 없지만 기사 도입부에서 밝힌 한인 뷰티서플라이에 대한 지적, 즉 손님들에 대한 불친절 등은 새겨 들을 만하다. 우리 비즈니스의 존재 이유는 흑인 손님인데 이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기사의 요약이다.

시원한 보라색 벽과 천장, 그리고 장식용 예술품들이 다른 뷰티서플라이와 차별감을 갖게 한다. 바로 흑인이 소유하고 있는 3 Sister's Beauty Supply이다. Ricky 와 Niky Crawford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게는 Plano 지역에서 3개월전에 문을 열었다. 이 가게 주변 10마일 반경안에 4개의 다른 뷰티서플라이가 있다.

기자는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른 두 개의 뷰티서플라이를 먼저 들렀다. 한 Asian 가게에 들어섰을 때 기자는 가게의 관계자들이 무례하고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불쾌한 것은 단골손님들을 감시하는 보안 플라스마 스크린이었다. 또 다른 Asian 뷰티서플라이에는 플라스마 스크린은 없었지만 카운터에 있던 한 여인이 내려와 단골 손님들의 뒤를 쫓는 것이었다. 이 가게의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흑인 가게에 대한 공급가격에 대한 언급을 꺼려했다.

Aron Ranen이 제작한 'Black Hair Documentary'라는 동영상에 따르면 흑인 여성들은 헤어 케어와 헤

- 1 신의 능력과 흑인의 美로 만든 카드
- 2 섹션마다 디스플레이가 따로
- 3 몸의 산성 농도 때에 따라 달라요
- 4 아내가 몰래 준비한 여행
- 5 길 위에서
- 6 박인구 전뉴욕협회장 68세 일기로 별
- 7 새 건강보험제도, 소사업체에 엄청난
- 8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설픈게 대
- 9 온라인 의류 판매 잊혀진 노년층 시장
- 10 해외동포 한국 부동산 군침

어 케어 상품 구입에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수십억 달러중에서 흑인 커뮤니티에 돌아 오는 돈은 얼마 안된다.

이 부부에게 가게 설립 동기를 묻자 Ricky는 한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딸이 셋 있는데 머리 치장에 뷰티서플라이에서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뷰티서플라이를 다녀온 뒤에는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매우 기분이 나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부부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매업체들도 Asian들이기 때문이다. 케미컬 제품은 헤어 제품보다는 구입이 쉽기는 하지만 흑인들에 의하여 지행되는 이 산업에서 흑인들이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 부부는 말한다. Nikky는 같은 도매업체로부터 물건 구입을 셀 수 없을 만큼 거절당했다고 한다. 도매업체는 또 다른 뷰티서플라이 스토어가 3 Sister's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절에 대한 변명으로 삼았다.

Nikky는 아시아 마켓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구입하려는 것은 실수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흑인 업체가 제조하는 MS, Jesse's나 Mixed Chicks같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 브랜드들은 아시아인들이 Plano에서 운영하는 뷰티서플라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Nikky는 손님들이 물건 구입을 요청하는 서식을 가게에 구비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비해 놓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 제품이 손님들의 머리를 손상하는 지 등을 살펴본 다음에 구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Beauty Times(http://www.beauty-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 ▶위로

✉ 메일보내기 📄 오류신고 🖨 프린트

🗨 기사 의견 쓰기

전체기사의견(1)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제목

의견등록

* 200자까지쓰실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업발아
(71.XXX.XXX.149)

2009-06-30 21:40:05
3 Sister's Beauty Supply
한번 잘해 보세요.
손님대접을 받으려면 가게안에서 행동을 제대로해야지.

🔍 삭제하기 🚩 신고하기

전체기사의견(1)

신문사소개 · 기사재보 · 광고문의 · 불판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10725 Midwest Industrial Blvd. St. Louis, MO 63132 | TEL: 314-785-0222 | FAX: 314-785-0058 | 발행인/편집인: 이계송
Copyright © 2003~2009 **BEAUTY TIM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eauty-times.com

Powered by **ND**OFF